

본문: 마태복음 13:33

제목: 큰 세상 속의 작은 누룩

1.

새 해가 밝았습니다. 2022 년은 가고 2023 년이 백지처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새로운 해를 우리는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일까요? 한 때 한국에서 새해 인사로 “부자 되세요~”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많은 소유를 갖고 부족함 없이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라도 잘 살고 부자도 되어가는데 한국 사회는 병들어 갔습니다. 자살하거나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진거죠.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어떻게 사는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우리 어린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고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자주 이야기 하지만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입니다. 사람은 언제 보람이 생기고 의미를 갖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다른 이와 연결되고 다른 이들을 도와주면서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발견하게 되죠. 2023 년을 다 살고 12 월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한 해 정말 잘 살았다.”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보람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누룩(a little yeast)처럼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지난 달에 말씀 드렸던 겨자씨 비유와 한 통으로 읽을 수 있는 비유입니다. 겨자씨 비유에도 말씀 드렸지만 이 두 비유는 적은 양으로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열매를 맺는 것을 핵심적으로 나타낸다고 말씀 드렸었죠.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그 성장의 속도도 빠르고 결과도 엄청나게 큼니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가루 서 말 속에 살짝 섞어 넣으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올랐다(마태복음 13:33)."

누룩이라고 하니깐 조금 우리에게 안 다가 오죠? 이스트를 본 적 있으신가요? 이스트가 누룩인데요 누룩은 다른 말로 효모(ferment, enzyme)를 가리킵니다. 많은 밀가루에 이런 이스트나 효모를 넣으면 빵이 부풀어 지고 쫄깃쫄깃 해집니다. 이 누룩이란 것은 쉽게 얘기해서 곰팡이(fungus) 입니다. 곰팡이는 고온 다습한(high temperature and humidity) 환경을 무척 좋아합니다. 물기가 있는 곳, 온도가 높은 곳에서 급속도로 번식합니다. 한국에 살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겨울에 외풍이(draft) 너무 심해서 창문에 비닐을 쳐서

바람을 막잖아요. 그런데 환기를 안시키면 벽에 곰팡이가 새까맣게 끼잖아요. 인류의 3대 난치병(an intractable disease)으로 알려진 무좀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곰팡이 균이 얼마나 강력한 지 잘 압니다. 누룩도 곰팡이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곰팡이 중에 좋은 곰팡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누룩이죠. 누룩은 당과 결합하여 발효를 일으킵니다. 발효되면서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을 만든다고 합니다. 바로 발효되면서 생기는 이산화탄소 땀에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거래요. 발효되면서 생기는 에탄올에서 술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스트가 얼마나 빵을 감칠맛 나게 해주는지 빵만들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자가 가루에 누룩을 넣었다고 했는데 분명 이 여자는 빵을 만들기 위해 서 말 가루에 누룩을 넣었던 거겠죠? 서 말은(three big batch of flour) 60 파운드, 36 리터 정도의 양입니다. 서 말의 밀가루로는 예수님 당시 100 명의 사람들이 먹을 빵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만들기에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밀가루입니다. 예수님은 왜 서 말이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엄청 많은 양의 가루에 붙어 가루 전체를 발효시키고 부풀리게 하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처럼 적은 양으로 시작하지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2.

여러분 기독교는 아니 다른 말로 복음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하에 기독교는 곰팡이 취급을 당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곰팡이 취급을 당했지만 복음은 로마 안에서 강력하게 퍼져 갔어요. 복음은 세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딱 달라 붙어서 세상을 더 아름답고 살맛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치 누룩이 밀가루에 붙어 발효하여 새로운 이산화탄소와 에탄올을 만들 듯이, 복음은 세상에 달라붙어서 세상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복음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입니다.

다하나교회는 비록 적은 숫자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이 변화되길 바라십니다. 세상이 비록 가루 서 말처럼 엄청 클지라도 잘 발효된 적은 누룩만 있으면 가루 전체를 다 바꿔 놓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적은 누룩을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빵 만들 때 이상한 이스트를 넣어서 빵이 부풀지 않은 경험 있으신가요? 저희 집에서도 Trader Joe's 에 노란 가루로 된 yeast 라고 적힌 것이 있어서 사서 빵 만들 때 넣어 보았어요. 그런데 빵이 하나도 부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밀가루가 부풀지 않는 두 가지 경우를 알게 됐죠. 언제 밀가루 반죽이 부풀지 않을까요?

첫째, 제대로 된 누룩이 아니면 부풀지 않습니다. 둘째, 누룩은 온전한데 누룩이 밀가루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부풀지 않습니다.

첫째, 누룩이 온전한 누룩이 아니면 밀가루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없습니다. 누룩이 밀가루에 달라 붙어 발효(fermentation)되어야 하는데 제대로 된 누룩이 아니면 소용없습니다. 걸모양은 누룩인데 밀가루가 썩은 것이라면 누룩의 효과를 낼 수 없겠죠. 썩은 밀가루는 다른 밀가루도 썩게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썩는 것, 즉 부패하는 것과 발효는 비슷하면서도 결과는 매우 다릅니다. 발효되면 몸에 좋은 항생(antibiotic)물질이 나와 더욱 맛나게 합니다. 하지만 썩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져 버리게 됩니다. 이 발효와 부패는 보기에 큰 차이가 없지만 결과는 전혀 딴 판입니다. 우리 나라 음식에는 발효식품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김치와 된장이 대표적인 발효식품이죠. 이 음식들은 썩지 않고 발효되어 우리 입맛을 돋굽니다.

젓갈(salted fish)을 보세요. 젓갈은 정말 신기합니다. 분명 생선의 시체인데 썩지 않고 발효되어 독특한 맛과 향내를 냅니다. 누룩을 만드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진짜 누룩에 달라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룩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딱 달라 붙어 예수님처럼 살기 원할 때 진짜 누룩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둘째, 누룩이 밀가루에 들어가지 않으면 밀가루는 그대로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누룩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갈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세상 앞에서 두려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처럼 튀지 않고 조용히 살아가고 싶은 유혹이 듭니다. 괜히 예수님처럼 발효됐다가 사람들의 비호감만 사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밀가루로 살아가면 안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새롭게 거듭난 삶을 두려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것을 세레라고 하죠. 세레 받은 교인이란 밀가루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누룩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삶이 맛깔나는(tasty)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누룩으로 살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변화된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변화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누룩이 빵을 맛깔나게 하듯,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다른 이들의 삶을 맛나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의 누룩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누룩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로마의 통치 하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와 탄압에 시달렸습니다. Colosseum 에서 사자의 밥이 되어 찢겨 가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죠. 그들은 누룩이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느 새 이 누룩의 영향력이 먹혀 들어가게 됐고 300 년 후 로마는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었죠.

우리는 밀가루가 되어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누룩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 같은 밀가루의 모습으로는 아무 영향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내 것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죠.

세상 속의 밀가루들과 똑 같은 모습이 아니라 누룩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자는 겁니다. 너희는 왜 다른 거야? 라는 핀잔을 들어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이에요” 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어야 합니다. 소심한 누룩이어도 좋습니다. 그냥 여러분의 직장 사무실만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바로 옆집만이라도 좋습니다. 그들 속에서 누룩으로 살아가 보십시오. 그들을 도우며 의미와 보람을 가져 보십시오. 그 안에서 발효되어 보십시오. 이웃들과 컨택을 시도해 보십시오. 인사도 건내보시고 말도 건내보십시오. 의외로 이웃들도 여러분이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들도 학교의 클래스 안에서 다른 친구들과는 다르게 살아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힘들어 하는 친구들과 괴롭힘 당하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그런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요. 웃으면서 친구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항상 주변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나 살피고 도와주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1 년 동안 누룩이 되어 맛깔나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살 맛을 잃어버린 우리 이웃들에게 인생은 살 만한 의미로 가득하다는 걸 알려주는 한 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의 한 해 가운데 가득하길 빕니다.